교육부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배포 2026. 7. 28.(화) 08:00

보도시점 (인터넷)2026. 7. 28.(화) 12:00
(지 면)2026. 7. 29.(수) 조간

영유아 사교육, 일찍 시작할수록 효과가 클까? 교육부·육아정책연구소, 영유아 교육 정보 제공

- 교육부·육아정책연구소·전문학회, 영유아의 건강한 배움과 성장에 필요한 과학적·학술적 정보 제공에 협력
- 「육아정책포럼」 통권 제88호를 발간하여 뇌 발달, 정서·행동, 인지과학, 유아교육 관점으로 조기 선행학습의 효과와 한계 분석
- '얼마나 일찍, 얼마나 많이'보다 '아이에게 맞는 방식인가'를 살필 수 있도록 보호자의 교육 선택을 돕는 정보 제공

교육부(장관 최교진)와 육아정책연구소(소장 황옥경)는 '영유아 사교육'을 주제로 구성한 「육아정책포럼*」 통권 제88호를 발간(2026년 여름호)한다.

*육아정책 현안에 관한 연구 성과와 정책 동향 등을 담아 육아정책연구소가 발간하는 정책 전문지

이번 「육아정책포럼」(이하, 포럼)에는 뇌 발달, 인지과학, 정서·행동, 유아교육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조기 선행학습이 영유아의 발달과 배움에 미치는 영향·한계를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봤다. 특히, '일찍 시작할수록 좋은가', '많이 배우면 더 잘 배우게 되는가'와 같이 보호자들이 자녀를 교육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마주하는 궁금증에 대한 과학적·학술적 정보를 제공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5월 영유아 사교육에 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육아정책연구소 및 전문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포럼도 협약에 참여한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발간되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한국영유아아동정신건강학회, 한국인지과학회, 구성주의유아교육학회

전문가들이 포럼에서 공통으로 강조한 것은 '몇 살에 시작했는지'보다 '아이가 어떻게 배우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보호자가 과장된 광고나 막연한 불안에 흔들리지 않고, 아이의 발달 상태와 흥미, 정서적 신호, 배움의 방식을 종합적으로 살펴 올바른 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신뢰할

만한 정보를 담았다.

이번 포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양동화)는 뇌가 경험에 민감하다는 것이 조기 교과 학습의 필요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안정적인 관계와 놀이·수면·신체활동·대화 등 발달단계에 맞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영유아아동정신건강학회(박성옥)는 조기 학습과 성취 압박은 정서·행동의 어려움과 관련될 수 있으므로, 피로·짜증·수면 문제·놀이 흥미 감소 등 아이가 보내는 부담 신호를 살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인지과학회(유제광)는 학습 효과는 학습량보다 경험의 다양성과 배우는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답의 반복보다 대화·놀이·탐색을 통한 배움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구성주의유아교육학회(박건령)은 놀이와 학습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며, 아이가 주도하는 놀이에 교사의 적절한 지원이 더해질 때 자기조절·협력·문제해결력 등 학습의 기초역량을 기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영유아 사교육에 대한 궁금증! 전문가가 전하는 핵심 정보 >

보호자 궁금증	전문가가 전하는 핵심 정보
❶ 일찍 가르칠수록 뇌 발달에 더 좋다?	영유아기의 뇌는 선행학습보다 안정적인 관계, 대화, 놀이, 수면을 통해 실행 기능과 정서·인지의 기초를 형성함
❷ 어려서부터 앉아 있는 연습이 필요하다?	학습을 지속하는 힘은 자기 주도적인 놀이에 몰입하는 경험, 또래와의 협력, 충분한 수면 등을 통해 발달함
❸ 반복적인 학습은 일찍 할수록 효과적이다?	반복은 익숙한 문제를 푸는 데 효과적이지만, 영유아기에는 같은 답의 반복보다 다양한 맥락에서 비교하고 변형하고 다시 시도 해보는 등 놀이 과정에서의 경험이 중요함
❹ 놀이와 학습은 서로 다르다?	놀이는 학습의 반대가 아니라 영유아가 배우는 방식으로 아이의 주도성에 성인의 질문, 풍부한 언어, 적절한 자료와 개념적 안내가 더해질 때, 놀이는 문해, 수리, 탐구, 자기조절 등 장기 학습 역량으로 확장됨

교육부와 육아정책연구소는 포럼을 육아정책연구소 누리집*에 게시하고, 관련부처 및 국회, 연구기관 등 총 3,255곳에 배포한다. 아울러, 주요 내용을 카드뉴스, 짧은 영상, 질문·답변 자료 등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콘텐츠로 제작

하여 확산할 계획이다.

*육아정책연구소 누리집(https://www.kicce.re.kr) > KICCE 연구 > 간행물 > 육아정책포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영유아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남보다 먼저 배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충분히 놀고 몸을 움직이며 스스로 질문하고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보호자가 과장된 정보나 막연한 불안에 흔들리지 않고, 영유아기 배움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신뢰할 만한 정보를 꾸준히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육아정책연구소 황옥경 소장은 육아정책포럼 권두언에서 '영유아 교육은 무엇이 효과적인가를 넘어 놀이와 관계, 탐색을 통해 아이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확장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정부는 부모가 불안 때문에 사교육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영유아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붙임】 육아정책포럼 통권 제88호(여름호) 주요 내용

<table>
<tr><td rowspan="4">담당 부서</td><td rowspan="2">교육부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총괄과
(영유아사교육대책팀)</td><td>책임자</td><td>서기관 최원석 (044-203-7030)</td></tr>
<tr><td>담당자</td><td>교육연구사 곽유미 (044-203-7032)</td></tr>
<tr><td rowspan="2">육아정책연구소 출판홍보팀</td><td>책임자</td><td>전문연구원 김혜진 (02-398-7729)</td></tr>
<tr><td>담당자</td><td>책임행정원 주송희 (02-398-7740)</td></tr>
</table>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육아정책포럼」 통권 제88호(여름호) 주요 내용

출처: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통권 제88호 내용 발췌

보호자와 교육·보육 현장을 위한
핵심 메시지

1 뇌가 빨리 발달한다는 것이 빨리 가르쳐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 뇌가소성은 아이의 뇌가 발달단계에 맞는 경험에 잘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 강한 자극보다 안정적인 관계와 충분한 놀이·수면·움직임이 중요합니다.

2 민감기는 '그때를 놓치면 끝'인 시기가 아닙니다.

- 영유아기 경험이 중요하지만, 특정 시기에 문자·연산·영어를 끝내야만 이후 학습이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영유아기 — 초등 — 중등 — 고등

아이의 발달은 연속적이며, 배움의 시기는 다양합니다.

3 조기 노출의 효과는 양보다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움이 되는 방식

다양한 사람과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와 놀이 중심 경험

주의가 필요한 방식

정답 반복과 평가 중심 학습은 탐색과 일반화의 기회를 줄일 수 있습니다.

4 좋은 놀이는 방임이 아닙니다.

- 아이의 주도성을 존중하면서도 성인이 적절한 질문을 던지고 새로운 자료와 언어를 제공할 때 놀이는 깊은 배움으로 확장됩니다.

5 사교육 시간을 정할 때 '기회비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학원이나 프로그램 때문에 아이의 중요한 시간이 줄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켜야 할 아이의 중요한 시간

균형 잡힌 하루가 아이의 성장을 돕습니다.

6 초등학교 준비는 선행 진도보다 오래 배울 힘을 기르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경험이 장기 학습역량의 토대가 됩니다.

7 아이의 신호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 다음과 같은 신호가 보인다면 일정과 교육방식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마다 속도와 방향이 다릅니다. 오늘의 작은 경험이 아이의 내일을 만듭니다.